

첨단장치로 안전하게... 커넥티드로 편리하게... 고객 유혹

제네시스 G90, 국산차 최초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적용

기아차 더 K9 후측방 모니터, 쉐타페 세계 최초 후석 승객알림장치 장착

첨단 안전 사양과 커넥티드카(인터넷 등 통신으로 연결된 자동차) 서비스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자동차 기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바뀌고 있다. 다른 분야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신기술은 차량 상품성을 높이는 한편,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양새다.

◇첨단 장치로 더 안전하게= '안전한 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첨단 안전 장치로 고객 발길을 끌었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 G90의 경우 차로 유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차장에서 차를 뒤로 뺄 때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 보행자를 감지해 경고를 보내는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후진 가이드 램프, 앞차와 간격이 좁혀질 경우 차가 알아서 스스로 멈추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등을 전 차종에 기본으로 장착했다.

후진가이드 램프는 후진 시 차량 후방 노면에 LED 가이드 조명을 비춰 보행자나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에게 알려주고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도 감지 범위를 차량 및 보행자에서 자전거와 주월 시 반대편에서 오는 차까지 대폭 확대했다.

기아차의 더 K9에 장착된 안전장치는 무려 18개나 된다. 주행 안전 기술의 경우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시스템을 비롯, 부주의 운전시 경고해주는 시스템, 야간 시야 확보를 도와주는 하이빔 보조 시스템도 설치됐다.

차량 문을 열 때 접근 차량을 감지해 경고를 해주는 '안전 하차' 시스템,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여 주변 물체와의 거리를 알려주는 주차거리 경고 시스템, 방향지시등을 켜면 선택 방향 사각지대 영상을 운전석에 띄우는 장치도 설치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전량 생산하는 쏘울 부스터에

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주의 경고 ▲후방 교차충돌 경고 ▲하이빔 보조 8개 안전장치가 적용됐다. 쏘울 부스터 EV에는 고속도로 주행시 스스로 속도를 조절,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시스템이 적용됐다.

'올 뉴 K3'의 경우 '전방 충돌방지 보조'를 기본 장착했고 '더 뉴 K5'에는 국내 중형 세단으로서 처음으로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 '인공지능(AI) 기반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했다.

현대차가 출시한 신형 쉐타페도 후측방에서 다른 차가 접근하면 뒷좌석 도어를 잠금 상태로 유지하면서 차문을 열 경우 경고해주는 '안전 하차 보조', 뒷좌석에 유아를 남기고 하차할 경우 초음파 센서가 감지,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후석 승객 알림' 장치를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전면충돌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차로를 벗어나면 경고를 주거나 차로 안으로 바퀴를 집어넣어주는 차로 이탈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등은 국산차 최초로 전 모델에 기본 장착했다.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도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차선이탈 경보시스템, 전방주돌 경보시스템 등을 적용했다.

◇커넥티드 서비스로 편리하게= 현대차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운영하는 커넥티드카를 1000만대로 늘린다는 전략에 따라 다른 자동차나 집, 주변 공간, 스마트 기기 등과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성능 컴퓨터보다 진화한 수준의 커넥티드카를 구현한다는 구상을 세워놓았다. 미국의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업체 미고(Migo), 후자의 차량 공유 선도 업체 '카 넥스트도어', 중국 인터넷 기업 바이두, 카카오 등과 제휴 관계를 맺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전량 생산하는 쏘울 부스터에 탑재된 차로이탈방지 시스템.

당장, 구글의 차량용 폰 커넥티비티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가 적용되면서 현대·기아차 운전자들은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기반 각종 서비스를 자동차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USB포트에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커뮤니케이션(전화나 문자메시지), 미디어 재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쌍용차의 G4렉스턴이나 티볼리에는 키를 소지하고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자동으로 도어가 잠기는 오토로킹 도어가 적용됐다.

관련 서비스도 속속 탑재되고 있다.

G90의 경우 국산차 최초로 신규 내비게이션 지도 및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다운로드해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탑재했다.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끄고 비상등



제네시스 G90은 내비게이션과 연계해 공기 좋지 않은 지역을 지날 때 자동으로 창문을 제어해주는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공기 청정 모드를 갖췄다.



K9에 장착된 후측방 모니터. 후측방 사각지대에 대한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다.

점멸, 메모리시트, 열선 조절, 창문 개폐와 시트 제어 등도 가능하고 내비게이션과 연계해 공기가 좋지 않은 지역을 지날 때 자동으로 창문을 제어해주는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기능도 갖췄다.

현대·기아차는 조만간 카카오와 연계, 음성으로 '카톡 읽어줘', '뉴스 읽어줘', '차량 온도 21도로 맞춰줘' 등 간단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기능도 준비중

이다. 또 전기차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으로 충전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하고 최적 충전소를 추천해주는가 하면, 전기차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목적지에 내리면 차량이 스스로 빈 충전 공간을 찾아 들어가 무선 충전하는 자율주차 기능을 갖춘 서비스도 구상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 美 수입자동차 고관세 부과 비껴가나

미 자동차연구소,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대상서 제외 가능성

미국 유력 자동차연구소가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가정했다. 미국 자동차연구소(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의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대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를 5개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분석 시나리오 모두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가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시나리오 1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3개국만 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한국을 제외한 이유로 "한국은 이전 보호무역 조치(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작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강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얻어냈는데 이번에도 관세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마·멕시코·캐나다간 협정(USMCA)의 강화된 원산지 기준을 수용한 대신 연간 260만대까지는 관세를

면제받는 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

시나리오 2에서는 유럽연합(EU)에만, 시나리오 3에서는 EU를 탈퇴하는 영국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시나리오 4는 일본만 부과 대상으로 예측했고 시나리오 5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EU, 영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을 추정했다.

한국,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상을 타결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있어 자동차 관세가 이들 협상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고성능차도 잘 팔리네

현대 '벨로스터 N' 출시 7개월 만에 1300대 팔려

현대차의 고성능 라인업 모델인 '벨로스터 N'이 출시 7개월 만에 누적판매 1300대를 넘어섰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벨로스터 N은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349대가 팔렸다.

벨로스터 N은 '운전의 재미(Fun to Drive)'를 위한 고성능 라인업 N의 국내 첫 모델로,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자동변속기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판매량이라는 게 내부 평가다. 현대차가 벨로스터 N 출시 고객 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고성능 모델을 즐기려는 젊은 층(구매자 평균 연령 33.7세)의 비율이 높았다.

생애 첫차로 벨로스터 N을 구매한 비율은 7%에 그친 반면, 차량을 4대 이상 구매했던 비율이 절반이 넘었고 자동차 동호



회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응답이 89%에 달했다. 벨로스터 N을 운용하는 방식도 기본 전방 드라이브(87%), 서킷을 포함한 고속주행(73%) 취미(70%) 등의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i30 N, 벨로스터 N으로 시작된 고성능 라인업 N을 확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면서 마니아 시장으로 진입도 자연스럽게 이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추가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정시
인문	신 학 과	○	
	한국어교육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2. 17(일) ~ 21(목)
- 전 형 일: 2019. 2. 22(금)

대학원 추가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목회학과(D.Min.)	○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사회복지학과(D.S.W.)	○
		통합예술치료학과(D.C.S.)	○
		통합예술치료학과(D.C.S.)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2. 14(목) ~ 20(수)
- 전 형 일: 2019. 2. 22(금)

신학대학원 편입추가모집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2. 14(목) ~ 20(수)
- 전 형 일: 2019. 2. 22(금)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30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